

웰빙을 위한 지리교육의 실제와 방향:

초·중학교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경한(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키워드: 웰빙, 사회과 지리교육과정, 개인의 웰빙, 사회의 웰빙

웰빙은 21 세기의 교육적 가치로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 특히 OECD 가 교육 2030 에서 교육 목적으로 웰빙을 제시하면서 웰빙은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중요한 교육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지리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행 2022 개정 사회과 지리교육과정도 웰빙을 직,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웰빙의 정의와 웰빙의 요소를,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에서 웰빙의 실재를, 그리고 지리교육이 지향할 웰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웰빙의 정의는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여기서는 웰빙을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에 성공적이면서 전심으로 참여하는 삶’(White, 2011: 78)으로 본 화이트(J. White)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이 정의에는 크게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 그리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삶이 존재한다.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는 개인의 선호와 욕구의 충족을 통한 자아실현과 이를 통한 타자 또는 사회와의 외재적인 관계 맺기를 강조하고 있다. 외재적인 관계 맺기의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실천이 참여하는 삶이다. 즉,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실현하고자 한다. OECD 도 미래 사회의 교육이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체성을 지닌 인간을 길러내고 변혁적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결국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을 지향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자신의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는 개인의 웰빙, 그리고 타자 또는 사회와 바람직한 외재적인 관계 맺기는 사회의 웰빙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웰빙은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그리고 사회의 웰빙은 사회의 좋음을 위한 다양한 외재적 활동을 지향한다. 그리고 개인의 웰빙은 기본적 필요 충족(주거, 소득, 직업, 교육 등), 가치 있는 추구(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 등), 그리고 사회의 웰빙은 사회적 기여, 공동체, 환경, 시민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교육목표를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웰빙 대신에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개인의 인격적 성장’은 개인의 웰빙을,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은 사회의 웰빙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에서는 ‘자신과 공동체의 웰빙’, ‘자신과 타인 및 지구촌 구성원 전체의 웰빙’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지리교육에서는 다중 스케일을 토대로 웰빙을 지향하고 있다(교육부, 2022).

현행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웰빙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웰빙은 초등학교에서는 장소 경험과 장소감, 지리적 문해력, 지리 탐구, 자연환경과 사는 곳에 대한 감수성, 살기 좋은 환경의 조건 등을,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지리의 힘, 장소감과 장소성, 지역의 문제와 발전 전망, 지리정보기술의 활용, 지리적 시각화, 자연경관에 대한 호기심,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감수성, 글로벌 쟁점의 관심, 평화 감수성 등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자기의 행복과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의 웰빙은 초등학교에서는 세계지리 문해력, 다양성의 이해,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인류 공동 문제, 분단과 평화의 장소 등을,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상호 연계성, 문화 다양성과 문화 혼종성, 세계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참여 및 실천, 지역 불균형, 글로벌 환경 이슈, 글로벌 시민 등을 통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에서는 대체로 다중 스케일에 기반하여 개인(고장), 사회(지역, 국가)와 세계의 웰빙을 다루고 있다. 특히 중학교 지리에서는 세계, 국가와 글로벌 순으로 웰빙을 다룬 점이 특기할만하다.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에서는 웰빙을 ‘지금, 이곳’에서의 개인의 웰빙에서 ‘미래, 저곳’의 사회의 웰빙으로 확대하여 다루고, 궁극적으로 ‘항상 함께, 전지구’의 웰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웰빙은 지리적 감수성, 장소감, 여행, 탐구 등을 통하여 심리적인 만족을 줌으로써 개인의 행복이나 성공을 성취하고, 사회의 웰빙은 지리적 사고, 관점, 역량을 개발하여 다중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및 글로벌 문제의 참여와 해결하여 사회의 행복이나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

향후 지리교육에서는 개인적 측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하여 잘사는 삶을 실현하는 웰빙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지리 여행, 매력적인 여행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만족과 성공을 주는 웰빙과 함께, 지역사회와 세계의 불평등, 부정의, 불공정으로 인한 갈등, 쟁점, 전쟁, 차이, 차별 등에 대한 관심, 참여와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의 웰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리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과 세계를 글로벌의 관점으로 넓게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웰빙을 사회와 세계의 웰빙과 잇대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White, J. (2011): *Exploring Well-Being in Schools*. Routledge.

ウェルビーイングのための地理教育の実際と方向

：小・中学校社会と地理教育課程を中心に

イ・キョンハン（全州教育大学校 社会教育科 教授）

キーワード：ウェルビーイング，社会科地理教育課程，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

ウェルビーイングは、21 世紀の教育的価値として大きく認められている。特に OECD が教育 2030 で教育目的としてウェルビーイングを提示することにより、ウェルビーイングは、韓国をはじめ世界各国が重要な教育目的に設定されている。韓国の地理教育も例外ではなく、現行 2022 改訂された社会科と地理教育課程もウェルビーイングを直接及び間接的に反映している。本発表では、まず、ウェルビーイングの定義とウェルビーイングの要素と、社会科と地理教育課程でウェルビーイングの実際、そして地理教育が志向するウェルビーイングについて述べる。

ウェルビーイングの定義は、様々である。本発表では、ウェルビーイングを「内在的に価値のある活動と関係について成功的でありながら全集中で参加するライフ」(White, 2011: 78)と述べたホワイト (J. White) の定義を用いる。この定義には、大きく内在的に価値のある活動と関係、そして全集中で参加するライフが存在する。内在的に価値のある活動と関係とは、個人の好みと欲求の十分に満たされることを通じた自己実現と、これを通じた他者または社会との外在的な関係を結ぶことを強調している。望ましい外在的な関係をきづき、積極的に実践することが参加するライフである。つまり、教育を通じた自己実現と、社会と健康に関わることを通じて個人と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を実現しようとする。OECD も、未来社会の教育が革新的で責任感のある主体性をもった人間を育て、変革的コンピテンシーを養うすることで、個人と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 (well-being) を目指す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る。定義に書かれている個人の内在的に価値ある活動と関係は、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そして他者または社会と望ましい外在的な関係を結ぶ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とみることができる。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は、個人の成功的なライフを、そして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は、良い社会のための多様な外在的活動を志向する。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は、基本的な必要事項を満たすこと（住居、所得、職業、教育など）、価値を追求すること（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ライフに対する満足など）として構成されている。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は、社会的寄与、コミュニティ、環境、市民参加で構成されている。

現行 2022 改訂教育課程の総論では、教育目標を「学習者個々人の人格的成長を支援し、社会を構成するすべての人の幸福のために互いに尊重し、配慮し、協力する共同体意識を育てる」と提示している。ここではウェルビーイングの代わりに「幸福」という表現を使っているが、「個人の人格的成長」は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を、そして「社会を構成するすべての人の幸福」は、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を表現している。そして中学校社会科地理教育課程では「自分と共同体のウェルビーイング」、「自分と他人および地球村構成員全体のウェルビーイング」として摘示している。これを踏まえると地理教育では、マルチスケールに基づいたウェルビーイングを志向している (교육부 (教育部), 2022)。

現行、社会科地理教育課程で扱っているウェルビーイングの内容をみると、まず、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として小学校では、場所に対する経験と場所に対する地理的センス、地理的文解力、地理探究、自然環境と暮らす場所に対する感受性、住みやすい環境の条件などが挙げられており、中学校では、地理の力、場所に対する地理的センスと場所の性質、地域問題と発展展望、地理情報技術の活用、地理的視覚化、自然景観に対する好奇心、文化多様性と多文化感受性、グローバル論点に対する関心、平和感受性などを通して個人のニーズを満たし、自分の幸福と成功的な生活に進むように強調している。次に、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として小学校では、世界地理文解力、多様性の理解、気候変化、自然災害などの人類共同の問題、分断と平和の場所などが挙げられており、中学校では、相互連携性、文化多様性と文化混宗（混在）性、世界と韓国の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参加と実践、地域不均等（不均等）、グローバル環境イシューなどを通して共同体の発展に貢献するライフを生きるように強調している。

社会科地理教育課程では、基本的にマルチスケールに基づき個人（故郷）、社会（地域、国）と世界のウェルビーイングを扱っている。とくに中学校地理では、世界から国というグローバルの順に応じてウェルビーイングを扱った点が特筆に値する。社会科地理教育課程では、ウェルビーイングを「今、ここ」での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から「未来、あそこ」の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に拡大し、究極的に「いつも一緒に、全地球」のウェルビーイングを強調している。そして個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は、地理的感受性、場所に対する地理的センス、旅行、探究などを通して心理的な満足を与え、より個人の幸福や成功を満たすこと、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は地理的思考、観点、コンピテンシーを開発し、多重市民として地域社会及びグローバル問題への参加と解決し、社会の幸福や正義を目指している。

今後の地理教育では、個人的側面からの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を通して、よりよいライフを実現するウェルビーイング教育をさらに強調する必要がある。特にライフの幸福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地理旅行、魅力的な旅行などをより具体化して提示する必要がある。そして個人の心理的満足と成功を与えるウェルビーイングとともに、地域社会と世界の不平等、不正義、不公正による葛藤、争点、戦争、相違、差別などに対する関心、参加と解決を追求する社会のウェルビーイングも強調する必要がある。地理教育を通して学習者が自分の日常と世界をグローバルな観点から異化して捉えることによって、自分のウェルビーイングを社会および世界のウェルビーイングと結びつけながら、成功するライフを歩んでいくことを期待する。

参考文献

교육부 (教育部) (2022) : 사회과 교육과정 (社会科教育課程), 교육부. / White, J. (2011): *Exploring Well-Being in Schools*. Routledge.